

## ‘막 오른 호남대전’... 영광·곡성군수 후보 등록

민주·국힘·혁신·진보·무소속 출마 ‘미니선거’ 불구 정치적 파급력 커 지지 호소하며 본격 선거전 돌입 여야 대표·지도부 총력 지원 나서

3주 앞으로 다가온 10·16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호남 정치 지형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각 당 지도부 또한 선거 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오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영광·곡성군수 후보들은 영광과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10·16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영광군수에는 기호 1번 민주당 장세일·기호 3번 조국혁신당 장현·기호 5번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나선다.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현재 서류 검토 중으로, 27일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김기열 후보는 심사숙고 끝에 불출마로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장 후보는 “군민의 선택을 받아 영광군수 후보자로 등록된 만큼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장현 후보도 후보 등록 후 곧장 영광 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지를 찾아 ‘청렴 군정·선의 경쟁·영광 발전’을 다짐했다.

장 후보는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남은 20일 더 많이 지역민들과 소통하겠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비 150만원,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청렴한 군정 위한 3개 공약 등을 통해 살맛나는 영광·신뢰받는 영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광 재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진보당 이석하 후보도 이날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 후보는 “영광정치는 지난 34년간 농촌지역을 황폐화시키고, 군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며 “군민이 주인 되는 영광,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수 선거에는 기호 1번 민주당 조상래·기호 2번 국민의힘 최봉의·기호 3번 혁신당 박용두·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관광으로 돈 버는 곡성, 모두가 잘 사는 행복 농촌 1번지 정책 등을 통해 곡성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등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만큼 당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혁신당 박용두 후보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석곡면 폐플라스틱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살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호남에는 화상전문병원이 단 한곳도 없다”며 “의료대란 시국에서 불안한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곡성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는 “곡성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모두가 찾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무소속 이성로 후보는 “IT융합단지 추진 및 신세계·현대 복합쇼핑몰 배후 물류단지 유치 등을 통해 곡성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곡성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는 인천과 부산, 전남에서 지자체장 4명을 뽑는 소규모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의 지도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 당 지도부 또한 일찌감치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유아숲체험원 인기 청명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북구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에 야외활동 나온 신세계 유치원 아이들이 잡자리채를 들고 나비를 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건호기자

##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급증 “지방 시장 현실 반영 필요”

정준호, 지역 미분양 심각성 경고  
광주 미분양 1년 만에 96% 증가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한계”



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 조치를 내렸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전남 지역의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사진) 의원은 26일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의 준

### 제3회 광주대스킹월드컵

# GWANGJU BUSKING WORLD CUP FESTIVAL

2024. 10. 1.(화) - 10. 6.(일)  
5·18민주광장, 광주동구 일원

주최 광주광역시당국

주관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협력 A·C·C

이콘 광주광역시관광진흥회

후원 G·J·O 광주관광공사

Verivers

이주커리